

♡1 친숙함과 낯센 사이의 긴장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1900~2002)는 해석학으로 과거와 의미에 대해서 탐구한다. 의미는 그 자체로 자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어떤 인식을 거쳐야만, 어떤 매개를 거쳐서야 전달된다. 그래서 해석학은 과거 문헌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해석을 둘러싼 온갖 의미와 방법들을 다룬다.

실제로 해석자와 해석대상 사이에는 친숙함과 낯센이라는 대극적 긴장이 존재하며, 그러한 긴장관계에 의거하여 해석학의 과제가 수행된다. (...) 그 긴장관계는 우리가 전통을 대할 때 느끼는 낯센과 친숙함 사이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역사적 간격이 있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낯설지만 우리 자신도 전통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친숙하기도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긴장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해석학의 본령이다.

♡2 우리의 행동거지와 일상을 지배하는 과거

가다머는 “보존한다는 것은 이성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삶이 폭풍 같은 격변에 휩싸이는 혁명적인 시대에조차 세상만물이 뒤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옛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존되며, 새로운 것과 결합하여 새로운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과 계획적인 행동만이 이성에 의한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존의 중요성을 낮잡았다. 그러나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급격한 서구화를 거치면서 ‘전통’을 낳았다 여기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과 사회를 지배한다. 21세기라고 해도 우리의 ‘습속’은 과거의 전통이 지배한다. 명절이면 왜 차가 막힐 걸 알면서 고향을 찾는가? 왜 서구화되었는데 여전히 밥에다 김치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가? 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려워하는가? 커다란 단절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거는 여전히 내 삶에 녹아들고 이어진다.

전통과 관습을 통해 신성시된 것은 익명의 권위를 얻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유한한 역사적 삶을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전통의 권위가—때로는 딱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우리의 행동거지를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교육은 전통의 권위에 기반을 둔다.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성인으로 성숙함과 동시에 ‘후견’의 기능은 상실되고 자기 자신의 통찰과 결단이 권위의 역할을 대신하긴 하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성숙기로 접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거나 일체의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서 생겨난 수치심과 증오, 한국전쟁에서 빚어진 공포와 분노, 군사독재에 자행된 폭력에 침묵하던 비굴함과 불안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과거는 내 몸짓에, 내 감정에, 내 욕망에 드리워져 있다.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느껴지는 까닭도 한국사회의 과거가 외국사회의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가운데 이어받을 만한 것이 전통인데, 전통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사회에 부모에 대한 효나 웃어른에 대한 공경은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예전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전통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로이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다머는 **“언어로 전승된 전통은 마치 대화의 상대방처럼 스스로 말을 걸어온다.”**고 표현한다. 전통은 **“그저 대상이 아니라 나와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과거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전통과 대화하면서 계승해나간다. 따라서 변화는 늘 생겨난다. 지금 우리의 언어와 인식으로 과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통은 바뀐다. 우리가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그저 전통을 답습하고 따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통을 갱신하면서 창조한다는 의미가 된다.

♡3 이미 치우친 채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는 나

내 생각, 내 욕망, 내 취향, 내 관념, 내 믿음에 이미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으면 탈레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위안부를 부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써야 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선입견이 송두리째 사라지진 않는다. ‘주관성’과 ‘선이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역사가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삶의 터전인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 주관성이라는 렌즈는 대상을 왜곡시켜서 보여 주는 거울이다. 개인의 자기의식이라는 것은 역사적 삶이라는 거대한 전기장 안에서 명멸하는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갖는 선입견은 개개인의 올바른 판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인적 존재의 역사적 현실성을 규정한다.

우리의 사고방식, 욕망, 행동습관에는 가족, 사회와 국가가 배어있고, 이것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내 주장이 아무리 맞다고 큰소리치더라도 나와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에게 나의 주관성은 ‘나만의 한정된 경험’일 뿐이다. 그래서 선입견은 잘못되었으니 선입견을 깰 부수고 정의롭고 객관화된 의식으로 판단을 하자는 건 ‘당연한 상식’으로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만,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가 보기엔 선입견 없이 생각하고 지각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선입견’일 뿐이다. 선입견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고 선입견이 우리의 선이해를 규정한다.”** 가다머는 선입견의 지위를 새로이 조명한다. 그는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고자 했다. 선입견은 무조건 나쁘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과연 인간이 선입견 없이 판단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뭔가를 해석할 때 되도록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선입견’들이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 선입견은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선입견에 손사래만 칠 게 아니라 선입견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입견이 늘 좋을 수만은 없음을 알고 선입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선입견의 타당성 여부를 부단히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가 중요해진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근원인 전통을 이해하고 과거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검증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4 이해란 과거와 현재의 상호융합 과정

가다머는 우리의 정신과 역사의 전통이 뒤섞이는 운동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한다. 현재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지평은 과거가 없이는 결코 형성될 수 없다.**” 역사와 ‘현재의 나’라는 서로 다른 지평이 순환하면서 융합되는데, 이를 가다머는 “지평융합”이라고 부른다. 이해는 현재 지평에서만 가능하지 않다. “**이해라는 것은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이한 지평들의 상호융합 과정이다.**” 우린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는 지평은 사회와 역사와 타자를 만나면서 즐기치게 변화한다. “**사실 현재의 지평은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다.**” 가다머의 철학에선 ‘완전’과 ‘완성’은 없다. 끝없는 지평융합과 해석학적 순환이 있을 뿐이다. 이 역동성에서 인간은 성장한다.

한 개인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결코 고립된 개별자가 아니듯, 어떤 문화를 감싸고 있는 완결된 지평이라는 것도 추상적 관념일 뿐이다. 인간의 현존재는 결코 어떤 특정한 관점에 전적으로 얽매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완결된 지평을 갖고 있지 않다. 바로 그것이 인간 현존재의 역사적 역동성이다. 역사적 지평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으로 진입하여 우리와 더불어 움직이는 공간이다. 지평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살아 있는 탐구자와 더불어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이다.

모든 의미는 자기중심성을 띠고 있다. 무엇이든지 나의 지평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건 나 중심으로 변형되면서 해석된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 없다. 언제나 해석을 거치면서 새로이 변화된다. 그렇다면 이해 자체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나란 존재가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 인지과정을 거치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존재와 이해가 다른 층위에서 논의된다. 그런데 가다머는 존재가 이해라고 한다. 나의 존재는 지금 내가 이해하고 이해된 상태다. 나의 이해 정도가 바로 나다. “**이해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이다.**” 우린 뭔가를 이해함으로써 나를 이해한다.

모든 이해는 결국 자기이해라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결국 어떤 표현을 이해한다는 것도 표현 속에 담긴 내용을 직접 파악한다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닫혀져 있던 자기 내면의 무엇인가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닫혀 있음의 상태를 비로소 깨닫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닫혀 있던 상태를 인식함과 더불어 자기 자신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어떤 형태의 이해든 간에 이해를 하는 사람은 어떤 가능성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기뻐한다고 할 수 있다.

♡5 물음의 본질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우린 선입견의 존재로서 “**선입견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단히 작용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선입견을 자각할 수 없다.**” 그래서 타자를 만나야 한다. 타자와 만나서 생겨나는 물음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선입견을 깨닫게 된다. 평소에 우린 자신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른 생각을 만나 자극을 받아야만 나의 선입견을 알게 된다.

선입견이 이를테면 다른 어떤 생각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만 우리는 선입견을 자각할 수 있다. 그러한 자극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전통과의 만남이다. 우리의 이해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으로써 타당성을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해의 첫걸음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데서 시작된다. 이것이 곧 모든 해석학적 조건들 중에서 으뜸가는 조건이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조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즉 우리 자신의 선입견을 원칙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입견을 유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논리적 차원에서 보면 물음의 구조를 갖는다.

왜 인문학을 공부하는가? 비판성을 키워 새로운 물음을 던지기 위함이다. 비판은 지금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려는 의문이고 도전이다. “의문을 가진 사람만이 앎을 터득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의문을 던져야 착상이 이뤄지고 뭔가 새로운 앎을 얻게 된다.

착상이라는 것이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떠오르지는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착상은 착상의 단서가 되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 생각의 방향을 잡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시 말해 문제제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착상의 고유한 본성은 착상이 마치 어떤 수수께끼의 해답처럼 떠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문이 떠올라 열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대답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모든 착상은 의문의 구조를 갖는다. 의문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 전제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6 인간은 유한한 존재

우리는 유한하고 한정된 지평을 갖고 있다. 나의 지평에 어떤 기억들은 중요하게 담기지만 어떤 기억은 망각된다. 이런 특성을 가다듬는 “유한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늘들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초월해서 저 높은 곳에서 공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건 나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지면서 경험을 늘려가는 과정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경험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 사람, 인간은 결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아는 자만이 본래적 의미에서 경험을 통해 깨우침을 도달한 사람이다. 따라서 경험을 통해 깨우침에 도달한 자는 예측의 한계를 알고 모든 계획의 불확실성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철저히 교조적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이자 “새로운 경험들을 향해 열려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내 생각이 옳고 자신의 판단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 생각과 삶이 유한하며, 특정한 영향을 듬뿍 받고 있음을 인정할 때 좋은 인간이 된다. 또한 “좋은 사회는 그 사회가 이해의 편협함과 사적인 편애를 넘어서는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로 고양될 때 승인되고 정당화되는 것이다.”